

## # 적벽가

- 삼고초려, 장판교 대전, 동남풍 비는 것, 적벽 대전, 화용도 패주 등의 삽화는 <삼국지연의>에 있는 것이지만 원작의 내용을 상당한 정도로 바꾸었다. 그리고 군사 설움과 군사 점고 등 원작에는 없는 것을 많이 만들어 넣었다.

- 조조는 매우 희극적인 인물로 만들고 그 모사(謀士)인 '정욱'을 춘향가의 '반자'와 같은 인물로 변용시키고 있다. 이것은 영웅 서사시가 아니라 민중의 노래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외국 문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서민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 군사 설움 대목은 비장미(悲壯美)도 있지만, '적벽가'를 지배하는 미의식은 희극미(골계미)이다.(비극적 상황에도 해학적 /조조 희화화 등)

- 조조라는 천하 영웅을 비겁한 인물로 그린 부분 등에서 허세와 위선으로 뭉쳐 있는 기성 권위와 폭력적인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

### \* 유비의 제갈공명 삼고초려 장면

<아니리>

동자가 나오거늘./“선생이 계옵시냐?”

동자 대왈,

“이제야 도산하야 서책을 보시다 초당 춘수 싶었사오니 기침키 어렵사옵니다.”

“오, 그러면 고치 말라.”

현덕이 팔짱 끼고 계하에 서 있을 제,

<찾은 중물이>

익덕의 성질은 급한지라, 고리눈 부릅뜨고 검은 팔을 뒤건으며 고성대갈 왈,

“아 우리 가가는 금지옥엽이라, 저만한 사람을 보랴 하고 삼고초려 (三顧草廬) 지극커늘 저렇게 거만을 부려? 저놈의 초당을 패여 무찌르고, 한끄럼지 불을 쌓아 바싹 지르면, 공명의 재주가 있다니, 참말인가 가수인가, 자나 깨나 죽나 사나 보리라.”

우루루루루루 달려드니 현덕이 만류한다.

“현재야, 현재야, 현재야, 아우는 그리 말라. 그런 법이 없는지라. 비성이면 불성이라. 은나라 탕인군도 이윤을 볼 양으로 신야에 삼빙하고, 춘추 때 제 환공도 동곽

야인 보랴 하고 다섯번 찾아갔다 겨우 한번 보았었고, 주문왕도 강태공을 지성으로 보았으니, 우리도 정성으로 와룡 선생을 보리로다.

<아니리>

“밖애 속객이 오셨느냐?”/ 동자 대답하되,

“전일 왔던 유항숙, 세번째 대류하야 반일이 되었사옵니다.”

“응, 그러면 어찌 진즉 고치 아니 허였는고?”

<세마치>

공명이 거동 보아라. 후당으로 들어가 이윽히 진정타가, 의관을 점지하고, 현덕을 양접하여 단으 올라 예필 좌정 후, 공명이 현덕을 살펴 보니 면여관옥이요, 자고 기이하여, 순약도지하고, 수수과슬이라. 오모 홍포으 뚜렷이 얹은 모양, 중흥할 인군이요. 현덕도 눈을 들어 공명을 살펴 보니, 머리 우으 윤건이요, 몸애난 학창이라. 백운선 손에 들고 엄연히 얹은 거동, 기질이 쇠악하여 입은 옷을 이기지 못할 듯허나, 미간의 천지조화며, 강산 정기가 어렸으니, 운주유악지중허여 결승천리지외혈 당시 영웅이 분명쿠나.

<아니리>

현덕이 공명을 아무리 보아도 영웅이라. 유항숙 꿇어 앉어 지성으로 비는 말이,

<중물이>

“선생 잠깐 들조시요. 한실이 미약하고 국운이 망국이랴, 종묘 사직이 망재조석인데, 초야으 문헌 선비 한탄이 무궁허고, 장사는 말을 타고 도무를 싫어허니, 가련헌 게 사직이요, 불쌍헌 게 백성이라. 북풍은 삽삽허고 백설은 분분헌디, 손 불어 축천허고 발 굴어 쉬여 올제, 뉘를 보랴 예 오리까? 선생의 높은 이름 들은 지 오래오니, 경천위지재와 안방보국지심으로 어린 나를 구하소서.”

<아니리>

공명이 배사주왈,

“양이 본시 무식하와, 포의천사로, 남양에 밭갈기와 강호의 고기 낚기, 글을 좀 좋아 일삼거든, 천하 도모한단 말씀 만불성설이라. 낭설포문하시고 존가허행을 허셨나니다.”

형익도 펼쳐 놓고 중원 시사 운운하여 이해로만 말씀뿐이요 나을 뜻은 없는지라. 현덕이 기가 막혀,

<진양>

다시 끓어 여짜오되,

“여보 선생, 헤여 보오. 지금 삼국이 분분하여 사방은 나신적자 구름 일듯 허옇기로, 역조 창생이 소연, 십실이 구공이라, 미약한 우리 한실, 선생이 아니시면 뉘라 부흥허오리까?”

오열한 소리 끝에 흐르나니 눈물ियो 쉬나니 한숨이라, 현덕의 일편심이 구천의 사무친다.

<아니리>

공명이 그제야 감탄하고 함루하며,

“천단한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현주를 도와 견마지력을 다하겠나니다.”

#### \* 교재의 이본 비교(군사 점고+화용도 패주)

[아니리]

불 쪼고 늘어앉아 조조 산 쪽을 가만히 둘러보더니, 또 공연한 웃음을 내어 ‘히히 하하하하’ 웃거늘, 중관이 여짜오되,

“승상님, 왜 또 웃소?”

“너 이놈들, 승상이니 망상(亡相)이니 하면서, 내 평생 즐겨하는 웃음도 못 웃게 한단 말이나?”

“승상님만 웃으시면 꼭꼭 복병이 일어납니다”

“이놈들아, 내 집에서는 날마다 웃어도, 복병은커녕 뱃병도 안 나고, 술병만 들오더라”

[자진모리]

뜻밖에 산 위에서 북소리 꿈 두리둥 둥 둥 둥 둥,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와, 얼굴이 먹장 같고, 고리눈 다복수염, 긴 창을 비껴들고, 우레 같은 큰 소리를 베풀며 뒤지르며,

“네 이놈, 조조야! 달지 말고 창 받아라!”

불꽃 같은 급한 성정 번개같이 달려들어 좌우익을 몰아치니, 조조 진영 장졸 주검 산처럼 쌓였구나. 장비의 호통 소리 나는 새도 떨어지고, 길짐승도 머무르니, 조조 정신 있을쏘냐.

“아이고, 정욱아! 저기 오는 장수 뉘가 보아라!”

정욱이도 겁이 나서 끝만 따서 하는 말이,

“아이고, 승상님, 떡이요, 떡이로소이다!”

“떡이라니, 먹는 떡이란 말이나? 이 판에 무슨 떡이냐?”

“장비, 장익덕이란 말이오!”

“아이고, 이 무서운 떡이로구나!”

조조가 황급하여 말 아래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허저, 장요, 장합 등이 죽도록 구원하여 간신히 도망을 하는구나.

[중모리]

늘어진 잡목, 평퍼진 떡갈잎, 얼크러진 침녕쿨 휘청휘청 거머잡고, 후유 끌끌 한숨 쉬며,

“촉도지난이 험타 한들 이에서 더할소냐?”

솔솔 헤쳐 넘어갈 적, 이곳은 화용도 경계로구나, 새만 푸루루루루 날아가도 복병인가 놀래이고, 낙엽만 버쩍 휘날려도 장수가 오는지 놀래이며, 말갈기를 두 손으로 붙들고, 말등에다 얼굴 대고 두 눈을 뜨지 못하고, 벌렁벌렁 떠는 모양 가련하고 불쌍하다.

[아니리]

정욱이 여짜오되

“승상님, 일어앉아 허리 좀 펴고, 눈 좀 뜨시오”

“윽다, 애, 듣기 싫다. 아무 말도 말아라, 귀에서는 화살 소리가 뿜뿜 나고, 눈에서는 칼날이 번뜻번뜻하여, 내가 눈을 못 뜨겠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정신 좀 차리시오”

조조 일어앉아 눈을 뜨고 사면을 막 바라볼 제, 뜻밖에 말 굽통 밑에서 메추리 한 쌍이 푸루루루루, 조조 질색하여 엎드지며,

“아이고, 정욱아! 이 장수가 뉘가 보아라! 조자룡보다 날래구나”

“승상님, 그게 장수가 아니라 메초리올시다”

조조 정신차려,

“그게 메추리란 말이나? 내가 메추리에게 놀랜단 말은 혹시 탄 사람들 들을까 두렵구나, 그러나 그놈 잡아 볶아 놓으면 술안주감 좋으니라, 결망에 술 내려라. 좋은 안주 본 김에 한잔 먹자”

……<중략>……

[진양조]

흩어진 군사 모여들 제, 갑옷 벗은 여러 장수, 군복 벗어 둘러멘 놈, 부러진 창 짙은 놈, 꺾인 활 둘러멘 놈, 깨어진 노구솔 멘 놈, 불에 타서 검은 군사들은 반신불수 갈 수 없고, 창에 찔려 오는 군사, 엉망진창 피 흘린 놈, 배고파 기진한 놈, 냉병 들어 설사 난 놈은 뒤보느라고 갈 수 없고, “어서 오너라!” 부르는 놈, 어떠한 군사 하나는 병거지 벗어 목에 걸고, 군복 벗어 팔에다 메고, 부러진 창대를 거꾸로 짚고, 절뚝절뚝 들어오며 대성통곡 설리 운다.

“아이고, 아이고, 어이 같거나. 천 리 고국을 어이 갈

거나. 높고 귀한 우리 부모, 규중의 젊은 아내 천 리 전장 날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 올가나, 내일이나 기별이 올거나, 의려망(倚閭望)이 몇 밤이며, 화석지탄(化石之嘆)이 몇 날이나 되시고, 영영.”울음을 운다.

[아니리]

조조 듣고 분을 내어,

“네 이놈들, 생사(生死)가 걸린 마당인데 진중에 요망한 곡소리가 웬일이냐? 만일 다시 우는 놈은 군법으로 목을 베리라!”

한 군사 듣거니 저 혼잣말로,

“허허, 이것도 군중(軍中)인 체라고, 이게 어디 군중인가? 영락없는 산중(山中)이다.”

정옥이 기 두르며 차례로 호명하되,

“일대장에 안우병이!”

한 군사 보고하되,

“죽었습니다”

조조 듣고 무릎을 치며,

“에이? 안우병이가 죽다니, 아까운 놈 죽었다. 그래 어디서 죽었느냐?”

“오림에서 자룡 손에 죽었나이다”

“그렇지, 아, 고 방정맞은 놈은 그런 아까운 인물만 꼭꼭 그렇게 도린단 말여, 또 불러라”

“좌사천총에 허무적이!”

[중모리]

허무적이가 들려온다. 부러진 창대를 거꾸로 짚고 절뚝 절뚝 들어오며

“아이고, 아이고, 어이 같거나, 고향 천 리 어이 같거나, 야속하지, 제갈 선생, 부질없이 동남풍을 빌어내어, 이리 고달프게 하시네그려, 애닦도다, 우리 승상, 일각 삼추 바쁜 길에 가거나 할 일이지, 점고하기 웬일인고” 이렇듯 울음을 우니, 조조 가만리 듣더니만, 분을 내어 하는 말이,

“이놈! 너는 인사도 하지 않고 우는 일이 웬일이냐? 저런 놈 그저두면, 다른 놈 본볼 테니, 잡아 내어 목 베어라!”천총이 기가 막혀 죽기로 달려든다.

“여보시오, 승상님! 여보, 승상님, 듣조시오, 죄 없는 백만 대군 한꺼번에 다 죽이고, 무슨 염치로 목 베라하시오? 살아 고향 못 갈 인생 어서 바빠 죽여 주면, 혼이라도 높이 날아 위국 고향 돌아가서, 그립던 부모 처자를 혼이라도 나는 만날랴요, 어서 바빠 죽여 주오” 어서 급히 죽여 달라고 벌벌벌 울면서 울음을 운다.

[중모리]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한데, 골짜기 눈 쌓이고

봉우리 바람 칠 제, 화초 목실 없었으니 앵무 원앙이 그쳤는데 새가 어이 울라마는, 적벽 싸움에 죽은 군사 원조(怨鳥)라는 새가 되어 조 승상을 원망하여 지지거리 우더니라. 나무 나무 끝끝트리 앉아 우는 각 새 소리.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 귀촉도 귀촉도 불여귀라, 슬피 우는 저 초혼조. 여산 군량이 소진하여 촌비 노략 한때로구나, 소탕 소탕 저 흉년새. 백만 군사를 자랑터니 금일 패전이 어인 일고, 입뺨쪽 입뺨쪽 저 뺨쪽새. 자칭 영웅 간곳없고 도망할 길을 피로만 낸다, 피꼬리 수리루리루 저 피꼬리. 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 속에 고리각 까옥 저 까마귀. 가련타 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들라, 병에 좋다고 쑥쑥 쑥쑥.

[아니리]

군사들이 승기(勝氣)내어 주옥을 장식하고,

[중모리]

노래 불러 춤추는 놈, 서럽게 곡하는 놈,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투전(鬪戰)하다 다투는 놈, 반취(半醉) 중에 욕하는 놈, 잠에 지쳐 서서 자다 창끝에다가 턱 꿰인 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울음을 우니,

[아니리]

한 군사 내달으며,

“아나 이 애, 승상(丞相)은 지금 대군을 거나리고 천 리 전쟁을 나오시어 승부를 미결(未決)해야 천하 대사를 바라는데, 이놈 요망스럽게 왜 울음을 우느냐. 우지 말고 이리 오느라. 술이나 먹고 놀자.”

저 군사 연하여 왈, /“네 설움 제쳐 놓고 내 설움 들어 보아라.

[진양조]

고당상학발양친(高堂上鶴髮兩親) 배별(拜別)한 지가 몇 날이나 되며 부혜(父兮)여 생아(生我)하시고 모혜(母兮)여 육아(育我)하시니 .....만일 객사를 하게 되면 게 뉘라서 영토를 하며 골폭사장(骨曝沙場)에 흩어져서 오연(烏鵲)의 밥이 된들, 뉘라 손뺨을 두다리며 후여쳐 날려 줄 이 있드란 말이나. 일일사친 십이시로구나.”

[아니리]

이렇듯이 설리 우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부모 생각 너 설움이 충효지심 기특하다.” 또 한 군사 나세며,

[중모리]

“여봐라 군사들아. 이내 설움을 들어라. 너 내 이 설움을 들어 봐라. 나는 남의 오대 독신으로 어려서 장가들

어 근 오십이 장근(將近)토록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매월 부부 한탄혈 제, 어따, 우리집 마누라가 온갖 공을 다 들일 제. .... 그림던 자식을 품에 안고 ‘아가 응아’ 업어 볼거나. 아이고 내 일이야.”

#### \* 같은 대목의 이본(異本) 비교

##### <중모리>

창황 분주 도망혈 제, 새만 푸르르르르르르르 날아가도 복병(伏兵)인가 의심을 하고, 낙엽만 버석 떨어져도 한장(漢將)<sup>7)</sup>인가 의심을 한다.

##### <아니리>

조조, 가끔 목을 움츠려, “정옥아, 귀에서 화살이 수루루루루루 지내가고, 목 너머로 칼날이 번듯번듯 하는구나” 정옥이 여짜오되,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승상님 목을 늘여 사면을 살피소서.”, “아,인자 진정 조용허냐?”, “예, 조용합니다.” 조조 막 목을 늘이라 혈제, 의외의 메초리 한 마리가 조조 말굽 사이에서 푸루루루루 날아가니, “아이고, 정옥아. 내 목 있나 보아라.” 정옥이 웃고 대답하되, “승상님 목이 없으시면 어찌 말씀을 허오리까?” 조조 무색하여, “그게 메초리더냐? 소금 발라 바싹 구면 한 잔 술 안주감 좋으나라.”, “이 급한 중 입맛은 꼭 아시요그러.”, “메초리한테 놀랬단 말, 불가사문어태인<sup>8)</sup>이로다.”

(중략 : 조조가 오림곡으로 도망하던 중 실없이 웃다가 조자룡, 장비 등의 군사를 만나 군사들을 더 잃는다. 그런던 중 군사 점고<sup>9)</sup>를 실시한다.)

##### <중중모리>

박달령이<sup>10)</sup>가 들어온다. 박달령이가 들어온다. 부러진 창대를 꺼구로 짚고, 두 눈을 부릅뜨고 덜렁거리고 들어와, 조조 앞에 가 우뚝 서서, “예이!” 하고 달려든다.

##### <아니리>

조조 보고 질색하여, “아이고, 저기, 저저거 저저 장비 군사 아니냐?” 박달령이 하는 말이,

“아니 뉘 아들놈이 장비 군사란 말이오, 조조 군사지.”, “네 이놈, ‘조조’라니?”, “아,이녀<sup>11)</sup> 군사도 몰라본단 말씀이오?”, “늑이 내 군사 같으면 왜 그리 성허냐?”, “아, 성하거든 회쳐<sup>12)</sup> 잡수시오.”, “이애, 그게 웬말이냐?”, “아까 병든 놈은 국 끓여 먹는다 했으니 성한 놈은 회쳐 잡수셔야지요.”, “너는 별로 성하기에 반가워 허는 말로다.”, “아, 군사놈들이 모도 미련해서 죽고 병신 되고 그러지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한

참 싸울 때 살짝 빠져 산꼭대기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싸움긋인즉슨 제일 좋습니다. 쟁<sup>13)</sup>치면 앞장서서 들어와서 혹은 먹고.”, “저놈 저 매우 실군사 놀이로구나. 네 이놈, 창날은 어찌고 창대만 지팽이 삼었느냐?”, “이 난통에 바늘은 어따 쓸라고 샀는고?”, “어떤 염병 았다 죽을 놀이 만남 이렇게 지는 전장통에만 있으리까?”

##### <늦은 중모리>

“우리 집에 돌아가면, 그림던 마누라가 우루루루 달려들어, 우수(右手)로 손길 잡고 좌수(左手)로 목을 안어, ‘반가워라, 반가워라, 사시 의복 지여 얻어 입어 가며 알뜰살뜰 살어 보라요.’”

- 미상, <적벽가>

[어구 풀이] 8) 불가사문어태인 - ‘불가사문어태인(不可使聞於他人)’의 오기. 다른 사람이 듣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 9) 점고(點考) -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 가며 사람의 수를 조사함. 10) 박달령이 - 머리를 덜렁덜렁 흔들는 사람. ‘박’은 ‘머리’의 상스러운 말. 11) 이녀 - 이쪽. 아군. 12) 회쳐 - (생선, 생고기 따위를) 회로 만들어. 13) 쟁(鏖) - 쟁과리.

-인물의 말과 행동의 묘사를 통해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인물의 언행을 통해 청중들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음성 상징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잘 살려 내고 있다.

- 조조의 희화화 부각

#### \*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조조

[중몰이] 영풍허신 관공님은 대의로서 살려 주옵소서. 천하득실은 재천이요. 조조 생사는 재장군이오니, 별반 통촉을 허옵소서. 쓰신 투구, 입으신 갑옷, 청룡도와 타신 말은 소장이 드렸난디, 그 칼로 이 몸 죽기는 그 아니 원통허오? 제발 덕분의 살려 주옵소서.” 관공이 또 호의로 답하시되, “내가 너를 잡은다고 군령 다짐하였으니, 너 놓고 나 죽기는 그 아니 절박허냐?” 조조 다시 복지(伏地)하여,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유현주와 공명 선생은 장군님을 믿습기를 오른팔로 여기는디, 초개 같은 이 몸 조조 아니 잡아 바치기로 의을 시행을 허오리까? 옛날 유공지사(庾公之斯), 자탁유자(子濯孺子), 두 사람을 생각하여 제발 덕분의 살려 주옵소서.” 수다 장졸들이 모두 다 끓어엮져, “장군님 덕행으로 우리 승상 살려 주시면, 여산여해 깊은 은혜 천추만세를 허오리다.” 수만 장졸들이 모두 다 끓어엮져 양천 통곡을 허는구나.